20170212-1135-_2012528 -90216 17. 2. 10. 9:46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7년 2월 12일(주일) 제1135호

# 깊은 회개, 더욱 살아나는 공동체

사진은 지난해 리더십 목양대회.

## 2월 18일부터 온누리 공동체 개강예배, 상반기 시작! 예배와 집회, 러브소나타 10주년 등 풍성한 행사 이어져

온누리 공동체가 2017년 상반기를 힘차게 출발한다. 2월 18일 산본안산공동체를 시작으로 3월 18일 부천온누리교회 소망, 사랑공동체까지 상반기 개강예배를 드린다(아래 표 참조).

2017년 상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풍성한 학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4일 '온누리 리더십 목양대회'를 시작으로 4월 고난주간 심야예배, 회복축제, 5월 대학청년부 카운트다운 집회, 존파이퍼 목사 초청 집회, 목회자 세미나, 6월 마리아행전, 7월 러브소나타 10주년 행사, 여름 아웃리치, 8월 하용조 목사 소천 6주년까지 매월 중요하고 특별한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7월 도쿄에서 막 오르는 러브소나타 10주년 기념행사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일본 복음화의 꿈을 재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여름 아웃리치도 일본선교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난주간 심야예배, 회복축제, 카운트다운 집회, 존파이퍼 목사 초청 집회, 마리아 행전 등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 차세대와 청년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예배와 집회에 대한 기대도 크다.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상반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 2017년 상반기 공동체 개강예배 일정 ■

| 서빙고 | | | | 양재 | | | |
|---|---|---|---|---|---|---|---|
| 날 짜 | 공동체 | 장소 | 시간 | 날 짜 | 공동체 | 장 소 | 시 간 |
| 2월 24일(금) | 이촌 | 두란노홀 | 오후 6시 | 2월 18일(토) | 산본안산 | 안산M센터 | 오후 7시 |
| 2월 24일(금) | s브릿지 | 한동홀 | 오후 6시 | 3월 2일(목) | 강남A | 드림홀 | 오후 7시 |
| 2월 24일(금) | 동작 | 비전홀 | 오후 6시 | 3월 2일(목) | 강남B | 화평홀 | 오후 6시 30분 |
| 2월 28일(화) | 마포 | 두란노홀 | 오후 6시 | 3월 3일(금) | 과천의왕 | 온유홀 | 오후 7시 |
| 2월 28일(화) | 한강 | 한동홀 | 오후 6시 | 3월 3일(금) | 강남D | 드림홀 | 오후 7시 |
| 2월 28일(화) | 강촌 | 시온홀 | 오후 6시 | 3월 3일(금) | POINT5 | 도곡 온유홀 | 오후 8시 |
| 3월 2일(목) | 여의도 | 두란노홀 | 오후 6시 | 3월 5일(주일) | 푸른누리 | 온유홀 | 오후 3시 40분 |
| 3월 2일(목) | 영등포구로 | 한동홀 | 오후 6시 | 3월 7일(화) | 분당A | 온유홀 | 오후 6시 30분 |
| 3월 2일(목) | 이수 | 비전홀 | 오후 6시 | 3월 7일(화) | 분당B | 화평홀 | 오후 7시 |
| 3월 3일(금) | 관악금천 | 두란노홀 | 오후 6시 | 3월 7일(화) | 양재 | 드림홀 | 오후 7시 |
| 3월 3일(금) | 강서 | 한동홀 | 오후 6시 | 3월 8일(수) | 강남C | 온유홀 | 오후 7시 |
| 3월 3일(금) | 양천 | 비전홀 | 오후 6시 | 3월 8일(수) | CMN | 드림홀 | 오후 7시 |
| 3월 3일(금) | 중종로 | 시온홀 | 오후 6시 | 3월 9일(목) | 서초A | 드림홀 | 오후 7시 30분 |
| 3월 4일(토) | 찬양사역 | 성가대실 | 오후 1시 | 3월 10일(금) | 안양평촌 | 화평홀 | 오후 8시 |
| 3월 5일(주일) | 일산 | 일산비전센터 | 오후 4시 30분 | 3월 10일(금) | 송파 | 온유홀 | 오후 7시 30분 |
| 3월 5일(주일) | 북누리 | 북누리비전센터 | 오후 5시 | 3월 10일(금) | 서초C | 드림홀 | 오후 6시 |
| 3월 7일(화) | 김포 | 두란노홀 | 오후 6시 | 3월 11일(토) | 서초B | 화평홀 | 오후 5시 |
| 3월 7일(화) | 서대문 | 한동홀 | 오후 6시 | 3월 11일(토) | 서초D | 드림홀 | 오후 5시 |
| 3월 7일(화) | 용산 | 비전홀 | 오후 6시 | 3월 12일(주일) | 하모니 | 비전홀B | 오후 5시 20분 |
| 3월 7일(화) | 가정사역 | 시온홀 | 오후 6시 | | | | |
| 3월 9일(목) | 광명 | 광명은광교회 | 오후 7시 | 3월 12(주일) | 부천 믿음/희락 | 드림홀/비전홀 | 오후 4시 |
| 3월 9일(목) | OCC | 한동홀 | 오후 6시 | 3월 17(금) | 부천 화평공동체 | 비전홀 | 오후 8시 |
| 3월 9일(목) | 성동광진 | 비전홀 | 오후 6시 | 3월 18(토) | 부천 소망/사랑공동체 | 드림홀/비전홀 | 오후 4시 |
| 3월 10일(금) | 동대문중랑 | 두란노홀 | 오후 6시 | 3월 1일(수) | 수원(연합예배) | Acts29비전빌리지 | 오전 11시 |
| 3월 10일(금) | 성북 | 한동홀 | 오후 6시 | 3월 10일(금) | 대전(연합예배) | 본당 | 오후 7시 30분 |
| 3월 10일(금) | 신용산 | 비전홀 | 오후 6시 | 3월 10일(금) | 남양주(연합예배) | 본당 | 오후 8시 |
| 3월 10일(금) | 서빙고 | 시온홀 | 오후 6시 | 3월 5일(주일) | 평택 | 본당 | 오후 4시 30분 |
| 3월 11일(토) | 고양은평 | 진관교회 | – | 3월 3일(금) | 인천(연합예배) | 프리스페이스 6층 | 오후 6시 |
| 3월 11일~12일 | 노원 | Acts29비전빌리지 | 1박2일 | 3월 9일(목) | 강동(연합예배) | 본당 | 오후 7시 |
| 3월 12일(주일) | 특초 | 순형홀 | 오후 5시 | 3월 5일(주일) | 양지 | 지하 1층 박모세홀 | 오후 2시 |

## 예수제자학교(JDS) 수강생 모집

### 주간반 50명, 저녁반 70명, 3월 개강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s School)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주간반 50명, 저녁반 70명을 모집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된 예수제자학교(JDS) 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등록금은 50만 원이다.

예수제자학교(JDS)는 주간반(서빙고, 양재)과 저녁반(서빙고, 양재, 수원)으로 운영된다. 3월부터 9월까지 22주 동안 진행된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주간반에는 여성들만 참가할 수 있다. 목요일 오후 7시와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되는 저녁반에는 남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하면 4학점을 인정해 준다.

문의: 02-3215-3625

## 2월 비전헌금, CGNTV 나눔 프로젝트 후원

오늘(12일) 봉헌하는 2월 비전헌금은 CGNTV 나눔 프로젝트를 후원한다. CGNTV는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극장 상영과 더불어 한국 교회 순회 상영을 준비하고 있다. 한평생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한국 교회 성도들과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련기사 10면〉

후원문의: 02-796-2243

상영문의: 02-3275-9306

**선교_** 온 누리와 함께 선교를 4-5면 **특집_** 2017 목회사관학교 6면 **대청_** 교회가 이 시대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 8-9면

20170212-1135-_2012528 -90216 17. 2. 10. 9:46 Page 2



신년기획 돌이킨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 기도하는 맛에 산다!

## 새벽기도로 되살아난 박세연 권사

새벽예배와 사랑에 빠진 박세연 권사.

새벽예배 드리면서 살아난 성도가 있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표어처럼 완전히 되살아났다. 그 주인공은 새벽예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는 박세연 권사다. 그녀는 신앙생활을 30년 동안이나 했지만 올곧은 신앙을 갖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관객 같은 신앙인에 불과했었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잠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고 했다. 그런 그녀가 새벽예배를 드리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기도하는 맛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달콤함이었다. 먹을수록 또 먹고 싶었다. 그때부터 새벽기도 가는 시간이 설레고, 아무리 바람이 차도 마음만은 따뜻했다.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진 그녀를 만났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새벽예배 자리에서 그녀를 만났다. 만나자마자 간증을 쉴 틈 없이 쏟아냈다. 간증하는 표정과 말투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표정은 보름달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간증을 듣고만 있어도 새 생명이 움트는 느낌이었다. 나도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매일이 감사하고 기쁘다고 했다. 말이 쉽지 어떻게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궁금했다.

### 무섭고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새벽예배 자리로 부르시다

박세연 권사는 1988년부터 온누리교회를 다녔다. 무척 좋아하는 책 〈생명의 삶〉이 그녀와 온누리교회를 이어줬다.

"1987년 〈생명의 삶〉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기 쉽게 너무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었는지 찾아봤더니 온누리교회더라고요. 그때부터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했어요."

당시 그녀는 항상 〈생명의 삶〉을 들고 다녔다. 말씀보다 예화를 더 좋아했다. 진짜 QT를 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부족함은 없었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다.

"십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뇌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힘든 순간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실낱같은 희망을 붙들었죠."

설상가상이라고 했던가. 또 다른 시련과 직면했다. 작은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괴로웠다.

"교회도 가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안가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무서워서 갔어요.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분으로 느껴졌거든요."

교회를 가도 마음이 공허했다. 그녀에게 신앙생활이 즐거울 리 만무했다. 그런 그녀에게 같은 공동체 권사가 전도학교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다. 못 이기는 척 수락했지만 딱 5번만 나가고 그만 둘 생각이었다.

"전도학교에 막상 갔더니 말씀이 귀에 쏙쏙 박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웃음) 전도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새벽예배에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그녀가 새벽예배를 나오게 된 계기다.

### 새벽예배와 사랑에 빠지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다

조금씩 새벽예배와 사랑에 빠졌다. 그 사랑이 2017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정점을 찍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벽기도회에 가게 하려고 준비시키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이키라'는 예언서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박히더라고요. 진짜 변화되고 싶었어요.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싶더라고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 더 이상 저녁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외식을 하더라도 집에 빨리 들어왔고 새벽예배에 가기 위해 일찍 잠을 청했다. 새벽기도 노트도 만들었다. 새벽기도 노트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새벽예배 말씀을 기록했던 노트를 집에서 다시 보면 또 새롭더라고요. 내 마음에 말씀이 다시 새겨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기도의 폭도 넓어졌다.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전에는 나를 위한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순 식구들을 위한 기도부터 하게 되요. 그러다보니 순원들과 나누는 기도 제목이 훨씬 깊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박일구 선교사님께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기도응답도 즉각적이었다. 생각한 것을 나누기만 하면 일사천리로 응답됐다. 정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셨다.

"새벽기도에서 만난 선교사 사모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추운 날 옷이 너무 얇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따뜻한 옷을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일날 친구들이랑 그 선교사 사모님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침 한 친구가 옷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깨끗한 옷 두 보따리를 그 사모님께 갖다드렸어요."

박 권사는 요즘 기도하는 맛에 산다. 기도가 그렇게 좋고,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 새벽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순 식구들이랑은 성경일독을, 새가족을 함께 섬기는 지체들과는 QT나눔과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요즘 매일 성경 20장을 읽고 있다. 말씀을 읽고, 기도로 이어지니 말씀 읽는 재미가 두 배 더 커졌다. 이 모든 변화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중에 일어났다.

"요즘은 찬양을 부르고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누구를 만나든지 긍휼한 마음이 절로 생겼다.

"새벽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요구르트 아줌마가 서 계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분의 그날 첫 손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작은 것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눈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새벽예배 말고 그녀가 기다리는 것이 또 있다. 바로 주일이다. 주일날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했다. 그녀는 매주 주일 전도학교에 참석하고, 3부 예배를 드린다. 오후에는 새가족을 섬기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피곤하다고 투덜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주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녀의 입술에서는 꽃향기가 났다. 그녀의 마음가짐이 날마다 더 아름다워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20170212-1135-_2012528 -90216 17. 2. 10. 9:46 Page 3



주일강단

이훈 목사

# 믿음의 여정

히브리서 11:6~10

**"돌이키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가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잘 걸어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발걸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걸어야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잘 걸어 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이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는 눈, 미래의 여정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은 남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르게 살았다는 것은 다른 생각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7~8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었을 때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도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는 그들을 주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되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원칙들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이상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이 상식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은 어려운 일이 가능하면 편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약된 의견들입니다. 지역과 문화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 삶에서 상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에 무게가 더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히 11:1).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과 믿음 없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은 허황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현실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다하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선택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삶의 여정 끝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방 사람처럼

둘째, 땅에서는 이방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9절).

그 사람들은 짐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머문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늘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순간이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안전과 정착을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나그네의 여정을 걷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배려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내가 두렵건대 저들이 그 땅에서 좋은 집도 짓고 넓은 터도 갖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착의 영적위험입니다. 정착하고 나면 하나님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또한 사람들은 정착한 곳에서 갈등과 분쟁을 겪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수렵과 채집시대에서 농경사회로 변화되면서 인류의 갈등과 분쟁은 더욱 심각해졌다.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정착지가 필요하다 보니 그것을 늘리려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갈등이 더 커졌다. 나중에는 민족과 국가의 경계선이 견고해지고 심각한 전쟁들이 확장되게 되었다"라고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볼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행객이라면 잘 내려놓을 텐데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넘겨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왕권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사울은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사유했습니다. 경쟁자처럼 다가오는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대결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압살롬의 반란 때에는 넘겨주고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사역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걷는 중이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이 여행을 충실히 하면 짐도 마음도 가볍게 되고, 모든 분쟁 과정이 훨씬 지혜롭고 평화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언젠가 요단강을 건너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의 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장막에 거하는 영성을 지니십시오. 더 채우기보다는 비우고, 더하기보다 나누고, 붙들기보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더 잘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여행

셋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여행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10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안정되고, 더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터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민족과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원치 않게 두 쪽이 나기도 하고, 다른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축해 놓은 기반을 흔들어놓고, 그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바람 앞에 촛불처럼 연약하게 만드셨을까요.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돌아와서 인생의 길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잘 설계해놓고 건축해놓았던 삶도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의 계획과 뜻, 설계가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어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가 무엇이고, 건축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더 묻고, 더 듣고, 더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돌이키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복된 여정을 가십시오. 삶의 후반부에서 돌아볼 때 후회스럽지 않기를 바라고, 후손들에게 고마운 흔적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여정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다른 세계관을 갖고, 다른 삶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170212-1135-_2012528 -90216 17. 2. 10. 9:46 Page 4



화성M센터 오픈

# 또 하나의 '전도의 황금어장'

## 이주민 위한 상담센터, 성경교실, 문화교실 등 운영

상가건물 3층에 화성M센터가 자리하고 있다(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03-1).

화성M센터가 오픈했다. 안산M센터와 김포M센터에 이어 외국인 이주민들을 전도하는 황금어장이 또 하나 생겼다. 지난 4일 온누리M미션이 경기도 화성 발안만세시장 화성M센터에서 개관예배를 드렸다.

화성M센터는 '제2의 안산'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화성에서 상담센터, 성경교실,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며 전도하고 선교할 계획이다. 섬기고, 돌보고, 가르치면서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들을 복음화 시키고, 그들을 고국 선교사로 재파송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경기도 화성은 안산과 더불어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은 대부분 중국계다. 중국계 이주민과 더불어 타 국가 이주민들이 터를 잡은 곳이 바로 경기도 화성이다.

공식적으로 3만 4천여 명의 외국인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중국(9,933명), 베트남(3,862명), 태국(3,550명), 필리핀(2,220명), 캄보디아(2,183명), 네팔(2,258명), 우즈베키스탄(1,514명), 인도네시아(1,843명), 미얀마(1,442명), 스리랑카(1,199명), 방글라데시(1,047명), 몽골(739명), 파키스탄(333명), 인도(126명), 러시아(149명), 카자흐스탄(138명), 키르기스스탄(241명)에서 온 사람 순이다. 그 어느 곳보다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섬김과 봉사, 교육과 전도가 필요한 지역인데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주민을 섬기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영적으로 매우 척박한 그곳에 화성M센터가 오픈한 것이다.

### 외국인 이주민 3만 4천명 거주 섬기는 교회는 찾기 힘든 열악한 지역

화성M센터가 오픈하기까지 믿는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다. 평택 온누리교회 몽골어 예배를 섬기던 아치트 전도사가 경기도 화성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을 위한 섬김과 봉사, 교육과 전도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일로 자연스럽게 온누리M미션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온누리M미션 전도팀은 1년 동안 발품을 팔아 지역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기도 화성 발안만세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됐다. 외국인 이주민들이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이면 발안만세시장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발안만세시장 인근에는 20여 개(인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가 넘는 외국 식당이 있다. 이슬람사원도 2개나 있다.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화성시에는 발안만세시장 만큼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이 따로 없다. 그런데 유독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드물었다. 찾기 어렵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지역조사 중인 온누리M미션 전도팀에게 다문화센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

"왜 이렇게 이주민을 위한 교회가 없습니까?"

경기도 화성 발안만세시장 인근에는 베트남인 이주민을 섬기는 교회가 1곳,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이주민센터가 1곳,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주민 노동센터가 1곳뿐이다. 외국인 이주민 3만 4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턱 없이 모자란다.

### 스리랑카, 중앙아시아 예배 개척 준비 윤용국 목사, 최명현 선교사 담당

화성M센터는 스리랑카, 중앙아시아 예배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용국 목사와 최명현 선교사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 두 목회자는 밤이고 낮이고 식당, 버스정류장, 병원 등지를 찾아다니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예배는 없지만 스리랑카,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고 있다.

윤용국 목사는 스리랑카 선교사 출신이다. 안산M센터에서 12년 동안 스리랑카 예배를 섬겼다. 최명현 선교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6년, 키르기스스탄에서 4년 동안 선교했다. 스리랑카와 중앙아시아를 이들 보다 잘 아는 목회자가 없다.

윤용국 목사는 "안산보다 화성에 스리랑카인들이 훨씬 많다"면서 "하루 빨리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했고, 최명현 선교사는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다 추방당했었는데 한국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화성M센터가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중보기도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화성M센터에서는 상담센터, 성경교실, 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이주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주중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문의: 010-9920-7019(윤용국 목사)
계좌: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예금주: 온누리M미션)

목회칼럼

## 화성M센터의 세 가지 꿈

평택 온누리교회 몽골어 예배를 담당하던 아치트 전도사님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발안면에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안산M센터 노규석 목사님을 비롯한 온누리M미션 예배책임자들이 그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터무니없이 적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화성M센터가 개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화성M센터는 이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세 가지 비전을 품고 있다.

첫째, 외국인 이주민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 하루는 화성M센터 오픈을 준비하면서 최명현 선교사님과 함께 화성 중앙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스리랑카인 '라산따라'를 만났다. 그는 한국에 온지 8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무릎을 다쳐 수술을 한 상태였다. 혼자 걸을 수 없는 그를 위하여 회사에서 막 한국에 온 또 다른 스리랑카 친구를 간병인으로 붙여주었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 그렇게 친구가 되었다.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화성M센터가 오픈하니 꼭 오라고 말해주었다.

둘째,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교회가 되고 싶다. 우리가 임대한 건물 지하에는 유흥주점이 있고, 옆 건물에는 모텔이 있다. 화성M센터에서 고개만 돌리면 유흥가가 즐비해 있다. 외국인을 위한 마트와 식당도 많다. 이슬람사원도 2개나 있다.

작년에 이 지역을 탐방 왔을 때 이주민센터에서 경기도 화성시에는 이상하게 외국인을 위한 교회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누군가 섬기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 속으로 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다. 화성M센터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 이주민들을 붙잡아 줘야 한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내야만 한다. 경기도 화성시 곳곳에서 이주민을 위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 부흥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셋째, 빛과 소금이 되고 싶다. 경기도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골목을 다녀보면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지저분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화성M센터가 발안의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부가 될 것이다. 이 지역은 잃어버린 가나안 땅이다. 이제 이 지역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가 되었다. 화성M센터가 오픈하면서부터 무엇인가 달라지고, 발안 지역이 정말 아름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소망한다. 세상에 좋은 영향력과 감동을 주는 화성M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윤용국 목사
(화성M센터)

20170212-1135-_2012528 -90216 17. 2. 10. 9:46 Page 5



온 누리와 함께 선교를

# 농어촌교회 다문화사역이 꽃을 피우다!

## 과천의왕공동체, 온누리M미션, 회남교회가 함께

안산M센터의 은 전도사(좌측)와 베트남 자매들.

대청댐 끝자락에 위치한 충남 보은군 회남면에 웃음꽃이 활짝 핀 교회가 있다. 김영수 목사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는 회남교회다. 회남교회는 비전으로 품고 4년 전 다문화사역을 시작했다. 베트남 자매들을 모아 문화교실부터 시작했다. 김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많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혔다. 언어가 원활하게 통하지 않았고, 다문화사역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그때 한 줄기 빛을 만났다. 온누리교회 과천의왕공동체와 온누리M미션이다. 회남교회, 과천의왕공동체, 온누리M미션이 협력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메말랐던 회남교회 다문화사역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더 많은 베트남 자매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복음을 사모하기 시작했다. 안산M센터에서는 베트남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도 파송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다문화사역이 농어촌교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급증했다. 다문화가정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런데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등으로 다양한 갈등이 생겼다. 자녀교육 문제와 고부갈등 등의 문제였다. 예전 같았으면 농어촌교회가 앞장서서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도왔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농어촌교회 스스로 다문화사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수많은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이 다문화사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경험도 없고, 봉사자도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다문화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역할

회남교회가 자리 잡은 회남면은 충남 보은군에서 가장 주민이 적은 지역이다. 1980년대 대청댐이 생기면서 마을 전체가 수몰된 탓이다. 주민 대다수가 마을을 떠났고 지금은 일부만 남아 생활하고 있다. 65세 이상 주민이 27%를 차지할 정도로 초고령 마을이다. 마을에 남아 있는 젊은 사람들이라고는 다문화가정이 유일하다. 그들마저 떠난다면 20년 뒤 회남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회남면의 미래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다문화가정이 위험하다. 위기 속에 있다. 문화차이, 언어차이 등으로 고부갈등, 부부갈등, 자녀교육 문제 등이 심각하다. 바람 잘 날 없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 회남교회 김영수 목사는 4년 전 다문화사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역을 시작했다.

"제가 2006년 회남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할머니 4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인원이 성도의 전부였습니다. 마을사람들 대부분이 어르신이었고 교회 다니는 주민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김 목사는 부지런히 심방을 다녔다. 날마다 주민들을 찾아갔다.

"심방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다문화가정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갈등이 무척 심했어요. 시부모 눈에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요리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며느리가 성에 찰 리 없지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문화와 언어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잔소리만하는 시부모가 좋을리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잘 믿는 한 자매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시부모가 빨리 죽으면 좋겠다' 고 이야기 할 정도였어요."

충남 보은군 회남면에 살고 있는 449세대 중에서 베트남 다문화가정은 20세대다. 타 국가까지 더하면 다문화가정은 훨씬 많다. 다문화가정은 급증했는데 결혼 이주민 여성들은 소외되어 있었다. 김영수 목사는 그녀들을 돕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문화센터를 열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국어 공부방과 요리교실을 운영했다. 한국어를 공부할 때에는 성경구절을 사용했다. 베트남 자매들이 교회에서 한국어, 컴퓨터, 한국요리, 한국문화 등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부갈등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좋다고 소문이 나자 김 목사가 운영하는 문화교실을 찾는 베트남 자매들이 더 늘어났다. 그만큼 가정불화도 줄었다.

"신기할 정도로 가정마다 갈등이 줄더라고요.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도 문화교실에 다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김영수 목사는 문화센터에 이어 베트남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성경공부도 하고 싶었다. 그런데 형편이 거기까지만 허락되었다. 김 목사는 베트남어를 전혀 몰랐고, 다른 성도들도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 맺고

어떻게 하면 다문화가정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도 잘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을 즈음 온누리교회 과천의왕공동체와의 만남이 시작됐다. 2014년 과천의왕공동체 여름 아웃리치를 회남교회로 온 것이다. 남편들을 위한 족구대회, 자녀들을 위한 차세대 블레싱, 아내들을 위한 요리 축제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역을 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 그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과천의왕공동체는 2015년 회남교회 한지혜, 예금란 자매와 함께 베트남으로 아웃리치를 갔다. 한지혜, 예금란 자매는 8년 동안 친정에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과천의왕공동체가 아웃리치를 겸해서 그녀들이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두 자매를 위해서 베트남으로 아웃리치를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험이잖아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베트남 자매들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과천의왕공동체는 2016년에도 베트남으로 아웃리치를 갔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2015년에 함께 갔던 두 자매가 먼저 고아원을 돕고 싶다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신들만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자신들은 살만 하니까 고아들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천천히 열매 맺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아웃리치를 다녀온 예금란 자매가 과천의왕공동체 이삼형 집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베트남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못 믿겠어요. 한국어 설교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한국어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요."

과천의왕공동체가 아웃리치를 가서 사역으로 다문화가정을 도울 수는 있지만 베트남어로 설교할 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안산M센터가 나섰다.

### 드디어 베트남어 예배를 드리다

"안산M센터를 찾아가 다문화선교에 대해 참 많이 배웠어요. 베트남어 성경책도 선물 받았고요.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함께 기록된 성경이라 베트남 자매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설명해주기 좋더라고요."

회남교회는 안산M센터를 만나고 또 한 번 거듭났다. 베트남어 예배가 신설됐다.

"그동안 예배를 드리진 않았거든요. 제가 한국말로 아무리 쉽게 설교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안산M센터 은 전도사님이 찾아왔어요. 지금은 은 전도사님과 함께 매월 첫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베트남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산M센터 베트남어 예배 성도들과 함께 수련회도 다녀왔고요. 저 혼자 사역할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베트남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그동안 심어졌던 복음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열매 맺기 시작했다. 벌써 베트남 자매 4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제가 4년 동안 베트남 자매들을 섬겼는데 요즘처럼 활짝 웃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제가 설교하면 눈만 깜빡이던 자매들이 은 전도사님 설교에는 맞장구도 치고, 질문도 하더라고요. 지체들이 베트남어 예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주일예배도 드리고 싶다고 성화에요."

20170212-1135-_2012528 -90216 17. 2. 10. 9:54 Page 6



2017 목회사관학교 '영혼을 살리는 리더'

# 위기를 기회로! 겸손하고 균형 있는!

## 목회자 340명의 다짐 "한 영혼에 더 큰 관심과 책임을"

목회사관학교에서 하용조 목사 리더십을 주제로 토크쇼가 진행 중이다.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340명(전임, 파트)이 '2017 목회사관학교'에서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하여 한 영혼에 더 큰 관심과 책임을 가질 것이라고 결단하고 또 했다.

목회사관학교는 지난 2월 6일부터 9일까지 '영혼을 살리는 리더'를 주제로 진행됐다. 영혼을 어우르고 살리는 리더와 교회가 되기 위한 비전을 나누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과 '균형 잡힌 리더십', 이주연 목사는 '예수의 가슴으로 불쌍히 여김'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자신, 공동체, 교회의 위기를 잘 분별하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겸손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내면, 관계, 사역에 있어서 균형 있는 리더인지를 살피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리더의 덕목이라고 했다.

온누리교회 목회자들 간의 교제와 나눔도 활발했다. 아웃팅, 팀빌딩, 큐티 나눔, 예수바보 콘서트, 그룹워크숍, 큐티나눔, 기도회 등을 통해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팀워크를 다졌다.

노치형 목사(강동 온누리교회)는 "한 영혼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했고, 이종현 전도사(SNS공동체)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리더십임을 배웠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나는 이렇게 영혼 살리는 목사 되겠습니다

### 늘 도전하는 목회자가 되어

영혼의 힘이 빠진 목회자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영혼에 힘과 능력을 갖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하용조 목사님은 불꽃같은 사역자셨다. 소천하는 그날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하셨다. 이재훈 목사님은 화목하게 하는 리더다.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하 목사님의 불같은 열정과 이재훈 목사님의 합리적인 목회가 온누리교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나를 내려놓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늘 도전하는 목회자가 되어 한 영혼을 살리고 싶다.

/ 윤길중 목사(Act29 해외비전교회 담당)

### 기뻐하고, 세워주는 리더가 되어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는 이재훈 목사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다.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치는 평신도, 자기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목사를 볼 때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올라오곤 한다. 그런 열등감과 질투심을 극복한 리더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리더라고 생각한다. 하용조 목사님의 리더십도 그랬다. 성도 시절 '성경의 맥을 잡아라' 강의를 하는데 하 목사님이 강의하던 장소와 시간을 내게 주신 적이 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기뻐하고, 세워주는 겸손한 리더가 되고 싶다.

/ 문봉주 목사(동경 온누리교회)

### 내 아픔처럼 여기는 목회자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리더는 '같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아픔을 진짜 내 아픔처럼 여겨야 한다. 또한 내가 먼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 목회자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성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이 곧 성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믿는다. 하용조 목사님은 창의적이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셨다. 이재훈 목사님은 겸손함 속에서 빛나는 통찰력, 창의력, 순발력을 갖추셨다. 두 분의 리더십을 본받고 싶다.

/ 임용성 목사(양천공동체)

### 모두가 리더가 되어

교회의 오랜 역사, 성장주의, 공동체 분파 현상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가슴에 와 닿았다. 목회자들이 교회의 위기를 감지해서 위험을 예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다.

나는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공동체 순장님들과 공유하고 싶다. 목회자만 리더가 아니기 때문이다. 순장도 리더다. 목회자부터 순장에 이르기까지 리더십에 대한 훈련이 된다면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부 본부장)

### 예수 닮은 리더가 되어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났고, 이재훈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셨다. 낮은 자리로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의 짐을 대신 지셨고, 원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진실로 사랑하셨다. 영혼을 살리는 리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리더가 되고 싶다.

/ 김승훈 목사(서초A공동체)

### 영혼을 사랑하는 리더가 되어

사랑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영혼을 살리는 리더는 결국 영혼을 사랑하는 리더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 일과 사람, 진리와 삶, 지성과 감정이 균형을 잡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사역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배웠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리더가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는 리더다. 나도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

/ 김소리 목사(송파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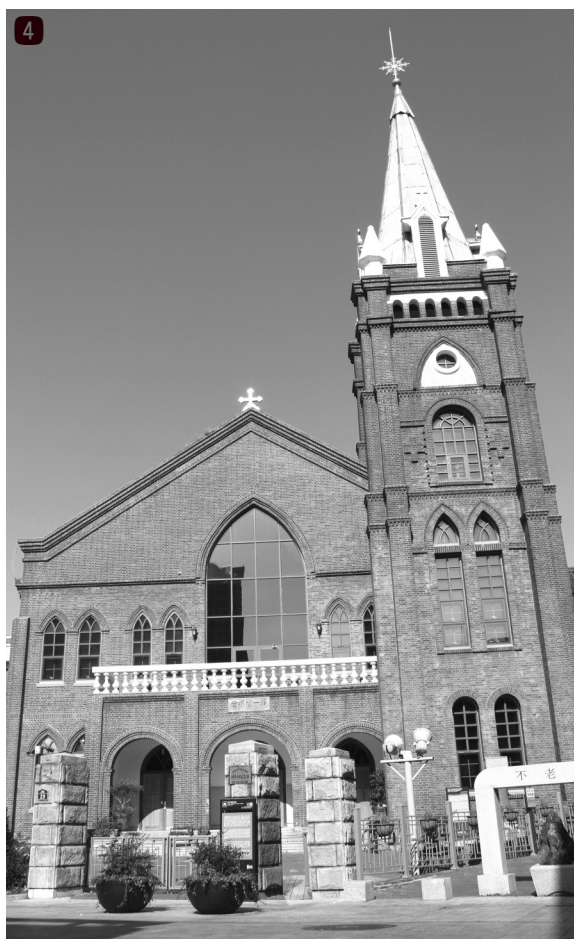
20170212-1135-_2012528 -90216 17. 2. 10. 9:46 Page 7



꼭 한번 가봐야 할 순례길

# ‘동방의 제2예루살렘’ 명성 되찾기를

## 대구 의료선교박물관, 구 대구제일교회를 가다



❶ 선교박물관(선교사 스윗즈 주택).
❷ 의료박물관(선교사 챔니스 주택).
❸ 교육·역사박물관(선교사 블레어 주택).
❹ 구 대구제일교회

대구는 기독교 인구보다 불교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대구시민(1,061,583명) 중에 불교 인구가 571,511명(53%)이나 된다. 반면 기독교인 인구는 영남권에서 가장 적다. 한때 대구는 ‘동방의 제2예루살렘’이라고 불렸다. 그것을 증명하는 유서 깊은 기독교 유적지를 지금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의료선교박물관’이다. 선교사들이 지냈던 선교사 숙소를 둘러볼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대구가 옛 명성을 되찾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간절한 바람도 녹아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대구 의료선교박물관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소속이다. 1899년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세웠다. 약방으로 시작해서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지금의 터로 이전하면서 동산의료원이 되었다. 1999년 개원 100주년을 맞이한 선교사 사택 2동(대구 유형문화재)을 선교박물관과 의료박물관으로 설립했고, 2001년에는 교육·역사박물관을 개관했다. 지난 100여 년 동안의 대구지역 의료, 선교, 교육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 잊혀진 그 이름 마포 화열 선교사

의료선교박물관 탐방은 선교박물관 왼편에 있는 사과나무에서부터 시작한다. 1900년 아담스 선교사가 미국에서 들여온 한국 최초 서양 사과나무의 자손목이다. 그 사과나무 앞에는 종탑이 있다. 동산의료원 100주년을 기념하며 세운 것이다. 종은 복음전파를, 두 기둥은 환자를 돌보는 교직원들의 사랑의 손길을, 종탑으로 가는 디딤돌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상징한다. 그 바로 옆에 선교박물관(대구시 유형문화재 24호)이 있다. 영남지역 최초 처녀 순교자인 마르타 스윗즈 여사의 이름을 따 ‘선교사 스윗즈 주택’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했던 주요 선교사들과 사택에 머물렀던 선교사들의 소개가 잘 되어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선교사가 있다. 그 주인공은 마포 화열 선교사다. 1949년 동산의료원에 왔다. 그의 아버지 마포 삼열 선교사는 평양 장로신학교를 설립한 인물이다. 그때부터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마포 화열 선교사가 동산의료원에 왔을 당시 병상은 60개, 직원은 118명밖에 되지 않았다. 마포 화열 선교사는 지인들에게 4,000여 장의 편지를 써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 결과 97만 달러가 모금됐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그 돈으로 외래 병동 등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병상은 1,000개 이상으로 늘었고, 직원도 2,500명까지 늘었다. 그야말로 동산의료원의 부흥을 일으켰다. 그는 1993년까지 동산의료원을 헌신적으로 섬겼다. 동산의료원에 뼈를 묻고 싶다는 유언대로 그의 묘지는 선교박물관 옆 은혜정원에 있다.

### 의료박물관부터 구 대구제일교회까지 대구 경북지역 역사, 문화, 종교를 한 눈에

의료박물관(대구시 유형문화재 제25호)으로 이동했다. 의료박물관은 ‘선교사 챔니스 주택’이라고도 부른다. 바바라 챔니스 선교사는 한센인들을 사랑으로 섬겼다. 의료선교원으로 가는 길에 장엄하게 지어진 현 대구제일교회를 볼 수 있다. 이곳은 ‘3.1 운동길’이기도 하다. 3.1 만세운동 당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운반했던 의미 있는 길이다.

의료박물관 1층에는 1800년대부터 1900년대에 사용했던 동서양 의료기기 등이 소장되어 있다. 대구지역 의학 발전상을 엿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금바늘 주사기가 기독교 전파에 큰 도움이 됐다. 당시에는 눈물샘이 막히면 눈물이 차올라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금바늘 주사기는 막힌 눈물샘을 뚫어주는 역할을 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기적의 도구’라고 칭했다. 의료박물관 2층에는 마포 화열 선교사가 생활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 놓았다. 그가 사용하던 책상과 모금을 위해 손수 썼던 편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 침실에는 큰 창문이 있는데 창문 너머로 ‘청라언덕’이 보인다. 박태준이 가곡 ‘동무생각’을 바로 이 청라언덕에서 지었다.

이곳에서 꼭 빼놓지 않고 가봐야 할 곳이 있다. 바로 은혜정원이다. 의료박물관을 나와 조금만 내려가면 있다. 은혜정원에는 스윗즈 여사를 비롯해 대구에서 선교하다 천국 간 열두 명의 영혼들이 잠들어 있다. 4개의 작은 묘비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무덤이다. 태어난 지 10일 만에 죽은 선교사의 갓난아기의 무덤도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어느 곳보다 중요한 장소다.

대구 기독교 순례길 탐방의 대미는 교육·역사박물관(대구시 유형문화재 제26호)을 둘러보는 것으로 장식한다. 블레어 목사가 지냈던 집이라고 해서 ‘선교사 블레어 주택’이라고 부른다. 1층에는 다양한 민속 사료와 조선시대 이후부터 시대별 교육 서적이 전시되어 있다. 당시 사용하던 나무 책상과 의자는 향수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해준다. 2층에는 대구 3.1 독립운동 발자취와 일제만행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대구에서 벌어진 3.1독립운동은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선교사들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일제의 만행을 보여주는 사진은 잔인하다 못해 끔찍하다. 가슴이 저절로 아려온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를 잘 보여준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의료선교박물관을 빠져나와 동쪽으로 약 710m를 걸으면 구 대구제일교회가 나온다. 서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눈에 띈다. 1893년에 파송된 베어드 선교사부터 아담스 선교사를 거쳐 지어졌다. 대구제일교회는 대구, 경북 지역 최초의 개신교회다. 교회 앞마당을 거닐고 있으면 이곳을 사랑으로 섬겼던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가슴 깊이 느껴진다.

동산의료원 의료선교 박물관
이용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오후 4시까지 입장가능)
휴관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문의: 053-250-7100

20170212-1135-_2012528 -90216 17. 2. 10. 9:45 Page 8





특집대담 | 청년문제와 교회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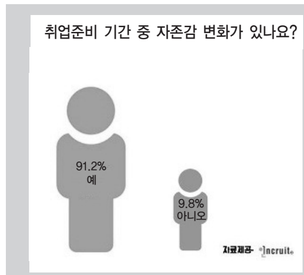
# 교회가 이 시대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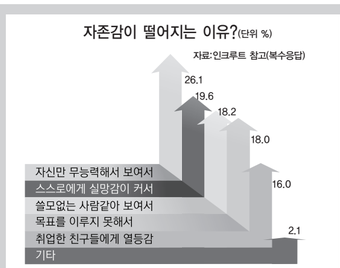
## 낮아진 자존감 높이는 게 급선무 … "나는 크리스천이다"
## 신앙의 모델, 청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어른들의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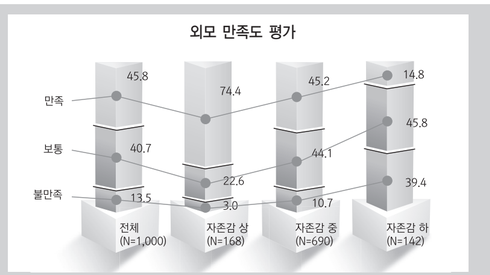
안 그래도 퍽퍽한 청년들에게 비보가 날아들었다. 앞으로 3년 동안 최악의 '취업빙하기'가 찾아온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취업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에서 실시한 '취업준비생 자존감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9명이 "취업실패가 이어지면서 무능력한 스스로에게 실망한 적이 있다"고 한다. 비단 취업실패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애, 결혼, 진로 등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이 본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소는 불가능하다. 청년들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교회가 해줘야 할 일이다. 교회만이 희망이다. 교회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대학청년부 본부장 김승수 목사와 대학부 담당 최성민 목사를 만나 이 시대 청년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이소정, 김영선 기자

최성민 목사
(대학부 담당)



김승수 목사
(대학청년부 본부장)

**Q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 본질이 무엇입니까?**

**최성민 목사(이하 최):** "이 시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애매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모든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고민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다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같은 문제는 본을 보이지 못한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년들의 고민에 대한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술을 마셔도 되는지,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해도 되는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등의 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고, 교회에서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어떤 남자와 여자를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특강을 수십 번 듣고, 관련 책을 여러 권 읽어도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진리가 부딪히다보니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문제의 본질입니다."

**김승수 목사(이하 김):**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절대 진리가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기준을 매주 교회에서 듣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 지켜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와 기준이 흔들리다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취업, 결혼, 진학, 연애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결정이 없습니다. 취업은 안 되고, 결혼은 늦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쉬운 선택, 더 편한 선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결혼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인데 이제는 그 기준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괜찮고, 동성 간에도 결혼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절대 진리가 흔들리면서 청년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이 시대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의 가치를 판단하는 주관적 신념입니다. 크리스천이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증명해줍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형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제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정리해봤더니 A4용지로 196장이었습니다. 모두 낮은 자존감에서 나온 고백들이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원망하다 보니 결국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B자매는 서울에서 알아주는 명문대 출신입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우리나라 최고 대학출신입니다. B자매는 자기만 우리나라 최고 대학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B자매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위치, 학벌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의 가치로 스스로를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낮은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됩니다."

**김 :**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고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삶의 여러 부분에서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 때 비전을 세울 수 있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오직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부터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느라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고나서 뒤늦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교회가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결국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입학해도, 최고의 기업에 취업해도 고민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제시한 성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쉬지도 못하고 달려갈 뿐입니다.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적 관점으로 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나의 존재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Q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최:** "정직과 거룩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기가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살아보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정직과 거룩을 가치로 여기고 살아보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선배들이나 어른들이 어렵다고 말하니까 지레 겁먹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빛이 더 밝게 빛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절대 진리가 흔들린다고 해도 크리스천은 절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빛이면 빛답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대학부 비전이 'Yes, I'm Christian'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있게 선포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빛이면 빛답게, 소금이면 소금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과 거룩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면 반드시 삶이 변화됩니다. 반대로 세상의 기준에 끌려 다니면 두려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크리스천들의 정직과 거룩을 보고 스스로의 죄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크리스천의 역할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김:** "영성, 실력, 비전입니다. 영성은 집의 기초입니다. 집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영성이 없으면 실력과 비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정체성이 영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영성 위에 탁월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을 보면 탁월한 신앙과 실력을 겸비했습니다. 성경에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비전은 지붕과 같습니다. 비전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비전입니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땅끝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년의 때에 영성과 실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청년들을 위하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최:**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교회에 거룩과 정직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모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하고 정직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크리스천에게는 청년들이 보고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올바른 크리스천들을 찾기 어려우면 안 됩니다. 거룩하고 정직한 크리스천들이 청년들과 교제한다면 그들이 분명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김:** "맞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청년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직장인,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줄 삶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가정에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 하나는 성인들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결혼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Q 교회는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김:** "온누리교회는 청년들의 영적성장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부채탕감,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 지원, 멘토링, iWe(결혼매칭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멘토링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멘토, 일대일 제자양육 등을 통해 청년들과 성인 멘토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성인공동체 멘토와 청년들이 만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멘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대학부는 캠퍼스 전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크리스천 비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본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시 찾아봤더니 대학생 20%가 크리스천인데 그 중 17%가 자신이 크리스천이란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가 크리스천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캠퍼스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대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6개 대학 캠퍼스에서 기도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학 캠퍼스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대학 캠퍼스가 변화되면 청년들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Q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한 말씀과 청년들을 위한 기도제목도 나눠주십시오.**

**김:** "청년들은 한국 교회와 사회를 짊어질 미래입니다. 교회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품으라'가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금년 슬로건입니다. 공동체, 직장, 가정, 학교에는 한 영혼을 품을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장이 순원의 영혼을 살리고, 순원이 삶의 자리에서 이웃의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삶이 어려운 이웃,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 이주민들을 품는 리더십을 길러낼 것입니다.

청년부흥운동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크리스천 청년들이 더 많아지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끝까지 돕는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대학청년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최:** "대학캠퍼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학청년부의 부흥은 캠퍼스부흥운동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대 대학생들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대학청년부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주십시오."

20170212-1135-_2012528 -90216 17. 2. 10. 9:46 Page 10

지난 4일 안산M센터에서 열린 2017 온누리선교 미션컨퍼런스 현장.

# "이주민선교는 시대적 소명"

## 2000선교, 온누리 선교 미션컨퍼런스 개최

2000선교본부가 주최한 '2017 온누리 선교 미션컨퍼런스'가 지난 4일 안산M센터에서 개최됐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리더십, 외국어 예배 리더십, 선교기관 리더십, 선교사역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미션컨퍼런스에서는 한국에 와 있는 200만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주민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2021년이면 이주민 300만 명이 한국에 살게 된다"면서 "이주민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안산M센터 노규석 목사는 '이주민 사역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온누리M미션 사역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차세대 리더 양성, 이주민 선교, 역파송 및 M선교사 양성, 외국어예배 공동체 확대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2000선교본부 김홍주 목사는 '온누리 선교 공동체의 비전'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온누리 모든 공동체가 이주민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삼형 집사(과천의왕)와 김만순 장로(이촌)의 이주민선교 사례발표도 있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윤석원 목사(강동 온누리교회)는 "이주민들과 연합하는 아웃리치를 고민해 보겠다"고 했고, 이태환 장로(성동광진)는 "공동체 차원에서 이주민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CGNTV가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한국 교회를 찾아간다. 극장 상영과 더불어 한국 교회 곳곳에서 상영할 만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제일교회 권대현 담임목사가 이 영화가 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상영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글로 보내왔다.

# 한국 교회 찾아가는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권대현 목사
(광주제일교회)

서서평 선교사는 광주제일교회 교인이셨다. CGNTV 덕분에 그 헌신과 사랑, 삶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광주제일교회 성도들도 영화에 출연했다.

그 또한 감사한 일이다. 전라남도 광주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선교사들이 많았다.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분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깊게 섬긴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다. 그분은 본인이 받은 선교비의 절반을 교회에 봉헌했다. 광주제일교회 교인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교사는 선교부의 일원이지 한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었다. 그분이 교인이 되기로 결정한 이유는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기를 작정한 분이셨다. 그분의 삶과 신앙을 그린 이 영화는 부와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세속화된 한국 교회에 큰 도전을 준다. 어떻게 더 낮아질 것인지,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서서평 선교사는 원래 간호사셨다. 이 지역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을 간호사로 양성했다. 교회가 복음 가운데 바로서는 것과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교적 모델을 제시하셨다.

땅속 깊이 묻힌 보화 서서평 선교사를 발굴해준 CGNTV에게 감사를 드린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 양재 실전기도학교 수강생 모집

양재 실전기도학교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더 깊은 기도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원.

양재 실전기도학교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자신의 정체성 이해, 믿음의 점검, 생각하고 기도하기, 다양한 기도 실습, 원가족 치유, 상처의 영적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570-7447.

# 2017년 1차 선교사 파송

국가: 남아시아국
이름: 강바나바, 조다비다

기도제목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도록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 남대문5가공동체 예배처소 이전

## 좁은 지하에서 빛 들어오는 2층으로

남대문5가공동체가 지난 5일 예배처소를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강대로 363-2번지 MS빌딩 2층 희망홀이 남대문5가공동체의 새 예배처소다. 남대문5가공동체는 서울역 주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2011년부터 양재 긍휼사역팀과 여호수아청년부(JCOM)가 섬기고 있다. 그동안 남대문5가공동체는 서울역 주변에 있는 한 분식집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나날이 예배 인원이 늘어나 더 이상 좁은 지하 분식집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자 새 예배처소가 마련되도록 기도해 왔다.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됐다. 깨끗하고, 밝고, 넓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새 예배처소가 마련되기까지 누구보다 원은희 집사(강남A공동체)의 헌신이 컸다. 원 집사가 사업장으로 빌린 곳을 예배처소로 꾸몄다. 원 집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예배처소 이전예배에서는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가 '작다고 꿈도 작지 말라'를 주제로 설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온사랑합창단 단원 모집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온사랑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만 13세부터 40세까지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다. 여성단원 5명, 남성단원 5명을 모집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4층 누리홀에서 연습하고 있다.

온사랑합창단은 교회, 병원, 학교에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온사랑합창단원이 되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문의: 010-8784-6695.

# 3월부터 도곡교육관 예배 변경

도곡교육관 예배 일정이 변경된다. 3월부터 숙명여고(도곡1관) 대강당에서 오전 9시와 11시 30분에 성인예배를 드리고, 교육관에서는 오전 9시 차세대, 오전 11시 영어 차세대, 14시 성인공동체 OBC 및 일대일 양육자반이 열린다. 중대부고(도곡2관) 대강당에서는 오전 11시 영어예배, 14시 청년부 갈렙공동체가 예배드린다. 부속실에서는 오전 11시 영어 차세대 예배, 16시 청년부 갈렙공동체 순모임이 진행된다. 도곡교육관 차세대 교사도 모집한다. 양재 사랑홀 로비, 도곡교육관 대강당 로비에 설치된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 도곡교육관 예배 안내 | | |
|---|---|---|
| 숙명여고(도곡1관) | 대강당 | ·9시 성인예배<br>·11시 30분 성인예배 |
| | 교육관 | ·9시 차세대 예배<br>·11시 영어 차세대 예배(중고등부-기쁨홀)<br>·14시 성인공동체 OBC 및 일대일 양육자반 |
| 중대부고(도곡2관) | 대강당 | ·11시 영어예배<br>·14시 갈렙 청년부 |
| | 교육관 | ·11시 영어 차세대 예배(영유아, 초등부)<br>·16시 갈렙 청년부 순모임 |

# 크리스천 CEO 리더십스쿨 수강생 모집

## 2월 24일까지 접수, 3월 14일 개강

2017 크리스천 CEO 리더십스쿨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1학기는 3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2학기는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1년 과정이다. 여름방학에는 비전트립을 실시한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탐방 비전트립'을 계획 중이다. 크리스천 CEO 리더십스쿨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김하중 장로(전 통일부장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목사), 이정숙 총장(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홍국 회장(하림그룹), 이남식 회장(국제미래학회), 배상민 교수(KAIST),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등이 강의한다.

리더십스쿨 참석을 원하는 성도는 2월 24일까지 입학원서 및 각 공동체 목사의 추천서를 첨부해서 홈페이지(www.christianceo.info)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02-570-7095.

20170212-1135-_2012528 -90216 17. 2. 10. 9:46 Page 11



▌예수제자학교 JDS 수료 간증

## 진짜 예수제자

/ 안수옥 성도(푸른누리공동체)

점점 안이해져가던 찰나 아는 멘토님께서 내게 예수제자학교 JDS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셨다.

예수제자학교 JDS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출석이 매우 중요하고,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이다. 멘토님의 전화를 받는 순간 내 안에서 강한 끌림과 부르심이 느껴졌다. 그렇게 예수제자학교 JDS에 참가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던 날이었다. 그날 나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했다. 나는 10여 년 동안 청년부에서 리더십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껍질뿐이었다.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뜨거운 울음이 터져 나왔다. 머리로만 알았던 주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졌다.

사실 나는 결혼하고 6년째 아이 소식이 없어 지쳐있었고 낙심해 있었다. 나의 믿음 없음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게 오렴. 내게 와서 나의 마음을 알고 나를 봐라"고 말씀하셨다.

그 강의를 듣고 난 이후 마음이 활짝 열렸다.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며 토라졌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들이 너무 감사했고, 기뻤다. 지난해 7월에는 타지키스탄으로 아웃리치를 갔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팀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했기 때문이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의 의가 깨어지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

예수제자학교 JDS 간사님들께 받은 섬김과 사랑이 정말 컸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며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느꼈다.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짜 예수제자가 되고 싶었다.

감사하게 올해 예수제자학교 간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학생들과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한다. 나처럼 여건이 어렵거나 일정이 길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와 어떤 사건을 통해 주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그 부르심에 결단하고 나오기를 권면한다.

▌세라핌합창단 간증

## 하나님은 마음과 과정을 보신다

/ 허소원 자매(김포공동체)

세라핌합창단 졸업생으로서 필리핀 아웃리치에 함께 갈 수 있냐는 연락이 왔다.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상황이 막막했고,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세라핌합창단은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믿음의 공동체였고,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아웃리치 일정은 미션의 연속이었다. 첫 번째 연주장에 도착했을 때 피아노가 없었다. 학교에서 하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아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상과 다르게 키보드조차 없었다. 필리핀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실감되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삶도 예상하지 못한 난관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을 선택해야 한다. 사람의 눈은 바로 앞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과정을 보신다.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기도로 나아가자."

팀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든 일정에서도 불평하지 않았다. 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나의 욕심으로 감사함보다 불평했던 적이 많았다. 그런 내게 주님께서 "모든 순간을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드렸던 찬양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교도소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예상과 달랐다. 우리의 찬양을 듣는 재소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였다.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했던 나의 과거를 회개했다.

아웃리치를 통해서 세라핌합창단 활동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내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도 깨달았다. 세라핌합창단원들은 강하고 담대하다. 그 힘든 일정을 기쁨으로 소화해냈다. 집사님들의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원동력이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른다. 잊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게 되었다. 주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계획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매순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큰 힘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나도 누군가의 기도후원자가 될 것이다.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전도의 생활화를 위하여

/ 임승무 성도(2단계 전도폭발훈련 수료)

내가 전도폭발훈련을 처음 시작 할 때의 마음이 떠오른다. 항상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많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

그런 내게 전도폭발훈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다. 그동안 아쉽게 놓쳤던 부분들을 더 잘 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열정과 갈증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를 배우고, 익히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도의 생활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무감에 마지못해 전도하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열심을 다하지 못해서 자책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했다. 열정과 갈증이 사라진 것 때문일까.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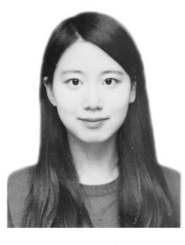
사실 전도폭발훈련 과정을 이해하면 할수록 전도가 참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전도를 생각만 해도 항상 기쁘고, 은혜가 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는 동안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가는 유익이 있었다. 부족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채워감으로 다듬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기게 되었다. 무엇보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또한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면서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나와 함께 해주신 그룹장님과 팀원들께도 정말 감사하다. 함께한 모든 시간과 과정이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었다. 특히 전도폭발이라는 귀한 훈련 과정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

▌입교 간증



## 언제까지나 예수님과 함께

/ 배서호 자매(하늘공동체)

나는 모태신앙인이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졌다. 주일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게 되었다. 나의 우선순위는 어느새 신앙보다 공부가 되어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대학입시로 가득 차 있었고, 교회 가는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졌다. 그렇게 대학입시 수시전형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1차 합격자 발표 전까지만 해도 불안해하며 기도했었다. 그런데 내가 지원한 모든 대학의 1차 수시전형에 붙고 나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감이 너무 컸던 탓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기보다는 나의 능력이라고 믿었다. 면접 준비도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한 대학에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장 가고 싶은 학교의 면접을 보게 되었다.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있어서인지 떨리기는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다.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오만함은 결과발표 날 완전히 꺾이게 되었다. 예비번호가 발표 창에 띄워져 있었다. 이틀 동안 눈물만 나왔다. 일주일의 면접 준비 기간은 나에게 있어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다. 나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고, 내 능력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했다. 내 능력 밖의 일임을 깨닫고 그제야 하나님을 애타게 찾기 시작했다.

급박한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무거운 마음으로 주일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시작 전에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가 영상으로 흘러나왔다. 그 영상을 보면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다. 그날 이후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시켜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 감사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합격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이 시간들을 통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앞으로 다가올 많은 시련과 고난들 앞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할 것이다.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20170212-1135-_2012528 -90216 17. 2. 10. 9:46 Page 12



## 장로칼럼

# 그 귀한 언어의 은사를

신민호 장로
(일본어예배)

나는 일본에서 유학했다. 일본인을 통해서 일본 유학의 길이 열렸고,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덕분에 나는 일본에서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어엿한 사회의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나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리더로 만들어 주셨다. 나는 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나는 그 일환으로 일본 교회와 일본인들을 위하여 '일본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일본어예배부는 그동안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연결된 일본 교회와 실행위원 목사님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고 있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일본어 과정을 수료한 성도들이 다카마쓰, 군마, 우에다, 오비히로, 아사히카와에 직접 가서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실시했다.

일본 목사님들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접하고 난 뒤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큰 뿌듯함을 느낀다. 군마 아라카와 목사님의 경우에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서 새롭게 목회를 해보겠다며 40년 동안 목회한 교회를 부교역자에게 넘겨주었다. 자신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다. 첫째 주에 4명, 둘째 주에 8명, 셋째 주는 10명, 넷째 주에 25명으로 성도가 늘어났다고 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듣고 일대일 제자양육이 일본 교회와 목회자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외국어로 직접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맛볼 수 있다.

첫째, 나눔의 은혜다. 어느 장로님이 중국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온 뒤에 아쉬움을 토로하신 적이 있다. 통역자를 끼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는데 자신이 말하는 것을 통역자가 100% 전달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고 하셨다. 더군다나 일대일 제자양육은 성경공부가 아니라 나눔인데 말이다. 일대일로 나눔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 있으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외국어 실력이 일취월장한다. 내가 하는 일본어 표현을 듣고 가끔씩 일본인 동반자가 고쳐줄 때가 있다. 미묘한 차이를 동반자가 짚어주고 설명해줄 때가 있다. 외국어 공부가 절로 된다. 무엇보다 그들이 눈물 흘리며 감동받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한국인 성도를 일대일 제자양육 하는 것도 은혜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 속에 나오는 모든 족속은 한국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나라와 국경을 넘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함으로써 나 자신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온누리교회에는 일대일 양육자가 참 많다. 외국어를 잘 하는 성도들도 많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가진 언어의 은사를 이용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행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확대·재생산을 해내야 한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성도라면 은사를 썩히지 말기를 바란다. 귀한 언어의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기대한다.

제3기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모집
문의: 영어 010-2128-1347
일본어 010-3287-4511
중국어 010-2658-2955

## 권사칼럼

# 좋은 나무, 좋은 엄마

이인혜 권사
(성동광진공동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우리 집에 있는 선인장이 꽃을 활짝 피웠다. 생각나면 가끔 물을 준 것이 다였다. 그 선인장이 겹겹의 고운 옷을 입고 발레리나 같은 몸짓으로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뿐만 아니라 주위를 화사하게 만들었다. 여린 잎 몇 개 붙어있던 것이 어느새 느티나무처럼 성장했다. 선홍색 꽃덩어리들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는 언제 피었는지도 몰랐던 꽃잎들이 시들어버린 채 매달려 있다. 아름답게 피었다가 져버리는 선인장을 보면서 자연의 법칙을 배운다.

꽃을 보면 선인장의 종류를 알 수 있듯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눅 6:43).

뿌리에 쌓여있는 것들이 자양분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 지극히 당연한 식물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누가 나쁜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고 싶겠는가?

나는 엄마가 되었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었다. 준비되지 않은 채 겉모습만 엄마가 되어 있었다. 나의 무의식 세계에는 두려움과 불안, 공포가 가득했다.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들로 뒤범벅된 나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혔다. 나쁜 나무, 나쁜 엄마로 살았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도하셨다. 오직 선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혼돈과 공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잡고, 은혜로운 중보기도를 하면서 함께 울고 웃었다. 하나님은 서로의 필요도 채워주셨다. 따뜻한 성령의 임재로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었고, 말씀과 함께 하는 기도공동체가 나를 더욱 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동응답기처럼 외우지는 못해도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변화되어 가는 것이 좋다.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는 자녀를 제한한다. 자신을 제한하며 모두를 자기 틀에 가두어 버린다. 자기중심의 열성으로 남겨 놓아야 할 가지들까지 쳐버리기도 한다.

엄마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실려야 살아난다. 그 살아있음이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한다.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것으로 살아내게 한다. 그래서 엄마의 살아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어미 된 자들을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고 기뻐하셨다. 중보기도 공동체 안에서 더욱 그렇다.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나의 삶이 되게 하셨다. 이전에 쓴 소리만 했던 내가 이제는 말씀 안에서 비전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되풀이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어린아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셔서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잠잠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

대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거나 전문 용어를 구사하며 증명하느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 혼돈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면 사람의 말도 경청하게 한다.

오늘 들려오는 소리들이 모두 내가 들어야 할 소리 아닌가.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나무, 좋은 엄마로 살아가고 싶다. 내 삶으로 피워내는 꽃이 과연 누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까.

## 신앙에세이

# 천국의 국경 넘은 나그네들

김상수 목사
(강남B, 하나공동체)

하나공동체는 매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탈북민을 위한 공동체다. 14년 전 하용조 목사님과 주선애 교수님을 중심으로 북한선교와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동체다. 하나공동체에서 처음 설교하던 때를 잊을 수가 없다. 설교하는데 울고 있는 탈북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속으로 놀라면서 우는 이유가 궁금했다.

"왜 울지? 내 설교가 그렇게나 은혜가 있었나?"

예배가 끝나고 다가가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설교하는 내 모습을 보고 북한에 두고 온 아들 생각이 나서 괴롭고 슬퍼서 울었다고 했다.

남한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은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왜냐하면 가족과 고향을 모두 두고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향을 떠난 실향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탈북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며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혹자는 관용이 있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남아있다.

일례로 외국인을 분류할 때 서구 사람들은 '해외거주자'로, 가난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이주민 노동자'로 명명한다. 북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은 더 심각하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남한 사회에 온 그들을 사회적 편견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정말 많다.

이런 점에서 하나공동체 탈북민들이 보낸 올해 설날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남한 사회의 도움만 받던 북한 지체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인 이주민 노동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 하나공동체 지체 21명이 몽골인 이주민들과 함께 설 명절을 보냈다. 안산M센터, 서빙고, 인천, 평택에서 모인 몽골인 이주민 110명과 탈북민들이 함께 설날 수련회를 개최했다. 탈북민들이 몽골인 이주민들을 그야말로 사랑으로 섬겼다. 그 모습이 천국잔치처럼 너무나 아름다웠다. 탈북민들이 어떻게 섬김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탈북민들은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처들을 많이 경험한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경을 거쳐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다양한 문화충격을 경험한다. 남한 사회를 매우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희생적인 헌신과 무조건적 사랑으로 탈북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는 탈북민들이 전혀 외롭지 않거나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탈북민 양육 과정은 매우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함께 하고 있다.

구약에서 이방 여인 룻을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듯이 하나공동체가 또 다른 이주민을 섬기는 일을 지속한다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이번 설 수련회를 위해 탈북민들은 소중한 시간을 구별해드리고, 헌금을 모으고, 명절 음식과 몽골 음식도 준비했다. 힘들고 지친 몽골인 나그네들을 진심과 사랑으로 위로했다. 비록 언어와 민족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천국의 유목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어느 탈북민 지체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설날이었다고 했다. 올해 설날에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국경을 넘은 나그네들이었다.

20170212-1135-_2012528 -90216 17. 2. 10. 9:46 Page 13



## 통일칼럼

# 통일로 가는 길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과 소련이 1945년 8월 맺은 '포츠담 밀약'으로 38선을 군사 점령 분할선으로 정하고 남한에는 미군,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군정을 펴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포츠담회담은 "한국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독립하게 한다"는 카이로선언을 재확인하는데 그쳤으나 미국과 소련의 군사점령은 한반도 분단의 씨앗을 심게 되었다. 그 후 1945년 12월 열린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의 통일독립국가 건립 전 단계로 미-소공동위원회 주도 하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국가의 건립을 돕고, 협력하는 5년 이내의 신탁통치안을 임시정부와 정당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것을 결의하였다. 신탁통치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반탁과 찬탁으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과 분쟁을 겪었다. 심지어는 테러까지 자행되었다. 서방과 공산권의 냉전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의 좌익과 우익의 충돌이 격화되었고, 미-소공동위원회도 의견대립으로 제구실을 못했다. 몇 차례 좌-우 합작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되었고 결국 1948년 단독정부가 남북에 들어섰다. 남북의 적대관계는 더욱 심해져서 남한은 '북진통일', 북한은 '적화통일'이라는 흡수통일이 통일이념으로 세워졌다. 사태를 오판한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동란(6.25사변)이라는 불행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남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UN군의 도움으로, 북한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기사회생했다.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휴전을 하고 비무장지대를 새 경계선으로 다시 분단국가가 되었다. 또 다시 적대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탁월한 경제성장을 이룬 남한은 견제와 포용정책을 함께 펴가는 대북전략과 통일방안을 견지하고 있으며,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궁핍에 직면한 북한은 생존전략으로 핵과 탄도탄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호전적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국가발전과 통일완수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염원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근래의 세계정세와 열강의 지정학적 변화를 면밀하게 살피며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 건립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 분단 초기 위정자들의 행동을 거울삼아야 한다. 근시안적 야욕으로 분당, 선동, 무질서를 초래해서 극단주의를 등장 시키는 잘못을 거듭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분단역사와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통일은 다각적 변수를 슬기롭게 파악하고, 풀어나가며, 정착시켜 가는 인내와 용기와 결단을 요하는 사명이 될 것이다.

통일 시나리오는 많으나 진정한 통일의 시기, 방법, 방향, 결과는 오직 하나님 소관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여러 형태로 통일사업을 수행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성급한 자기 과시적 성과 추구나 아전인수식 접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진실한 기독교 정신이 확고히 서고, '거룩한 통일국가'라는 비전 아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긴 안목의 예수 바보행전이 진정한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숭고한 형제와 이웃 사랑의 기독교적 사명을 붙들고, 세력의 팽창이 아니라 사랑의 확산, 점령자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신실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와 성도가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통일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북한 동포와 주변 국가들이 경계를 풀고 호응의 자세로 다가오도록 인도하실 것으로 확신한다. 거룩한 통일국가의 건설은 하나님 나라를 세계로 펼쳐가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받드는 길이 될 것이다. 통일로 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뜻을 간구하며, 거룩한 하나가 되는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원로 장로
(통일 위원회)

##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 동반자 | 양육자 |
|---|---|
| **서빙고** | |
| ■ 가정사역 | |
| 유지연 | 김효순 |
| 이규현 | 이재억 |
| 정성인 | 이성주 |
| 최순주 | 조성란 |
| ■ 강서 | |
| 강혜원 | 이윤아 |
| 송인애 | 정인애 |
| ■ 강촌 | |
| 김은희 | 서미리 |
| 정종희 | 김형애 |
| ■ 고양은평 | |
| 김민희 | 안미훈 |
| 신장섭 | 손진모 |
| 한진태 | 장병욱 |
| ■ 관악금천 | |
| 권운옥 | 김지수 |
| 서은하 | 안나희 |
| 오성환 | 김규채 |
| 이주연 | 한윤미 |
| 한순혜 | 이경화 |
| ■ 광명 | |
| 고은주 | 이순남 |
| 박창만 | 이준호 |
| 조성은 | 안은선 |
| 조정훈 | 박선규 |
| ■ 김포 | |
| 김상묘 | 정정희 |
| 나연수 | 이승욱 |
| 박승춘 | 박인호 |
| 서동렬 | 김남수 |
| ■ 노원 | |
| 김나단 | 최기홍 |
| 김연선 | 신정희 |
| ■ 동대문중랑 | |
| 이상훈 | 문광호 |
| 한성란 | 최순연 |
| 홍경인 | 서승민 |
| ■ 동작 | |
| 박성효 | 이원숙 |
| 전준범 | 이성환 |
| ■ 마포 | |
| 김수천 | 장장용 |
| 박소연 | 현혜련 |
| 손규혜 | 배미령 |
| 악보진 | 필감려 |
| 오윤숙 | 임순옥 |
| 오지영 | 김미숙 |
| 윤치웅 | 정호경 |
| 이승연 | 이도상 |
| 이영규 | 윤정화 |
| 이외순 | 윤영옥 |
| 이지향 | 최문희 |
| 한이옥 | 배미령 |
| 허진경 | 조미희 |
| ■ 북누리 | |
| 김성은 | 김은석 |
| ■ 서대문 | |
| 유은주 | 양영회 |
| 황혜영 | 강성희 |
| ■ 성동광진 | |
| 김요섭 | 서호양 |
| 노인배 | 황우선 |
| 명현주 | 남궁선 |
| 박문용 | 류기선 |
| 성희원 | 서경주 |
| 양혜원 | 지연주 |
| 이사명 | 한숙희 |
| ■ 성북 | |
| 김효주 | 오현주 |
| 백성렬 | 김민호 |
| 이지수 | 김명희 |
| 한은희 | 박은희 |
| ■ 신용산 | |
| 금소윤 | 최지영 |
| 김경희 | 김경남 |
| 김제욱 | 심상보 |
| 유수현 | 조진영 |
| 이순진 | 김 윤 |
| ■ 양천 | |
| 강성진 | 배승철 |
| 전순담 | 박혜경 |
| ■ 영등포구로 | |
| 강길선 | 심길보 |
| 강현상 | 양승경 |
| 김성오 | 김영미 |
| 나지엽 | 배병준 |
| 남영준 | 김용만 |
| 박성혜 | 김미성 |
| 박인숙 | 최지은 |
| 석선자 | 정향순 |
| 심재희 | 최희정 |
| 이지현 | 박상숙 |
| 임 영 | 김충희 |
| 조성호 | 신전수 |
| 최연수 | 이정란 |
| 한기흥 | 정연식 |
| ■ 용산 | |
| 고희관 | 장승훈 |
| 김상범 | 박성진 |
| 김선미 | 천영미 |
| 김이호 | 박진호 |
| 윤춘병 | 오진환 |
| 이대한 | 이태효 |
| 이 랑 | 성만선 |
| 이희정 | 박윤옥 |
| 홍미영 | 홍정옥 |
| ■ 이수 | |
| 장대일 | 허 백 |
| ■ 이촌 | |
| 권현진 | 김지영 |
| 장석산 | 김병식 |
| 정만수 | 박천호 |
| ■ 일산 | |
| 김정심 | 구본영 |
| 박애자 | 서영순 |
| 이해선 | 최경선 |
| 장영배 | 정무인 |
| 최은정 | 허덕영 |
| 최지원 | 안화숙 |
| ■ 중종로 | |
| 김영자 | 조옥형 |
| 이상무 | 최효엽 |
| 정지태 | 남관우 |
| ■ 찬양사역 | |
| 안혜준 | 이혜숙 |
| ■ 특별한초대 | |
| 민창기 | 안직현 |
| 이태훈 | 박영우 |
| ■ 한강 | |
| 김지훈 | 유영수 |
| 오주희 | 최영미 |
| 이수인 | 이조앤 |
| 장상열 | 배기석 |
| 최경혜 | 장은미 |
| 한미화 | 손준희 |
| ■ 공동체없음 | |
| 강예림 | 정성진 |
| 강주연 | 이선희 |
| 권태희 | 심우혜 |
| 김수현 | 조묘순 |
| 김은지 | 신미영 |
| 노슬유 | 신경진 |
| 성소라 | 신지영 |
| 이정효 | 김종성 |
| 임정민 | 김제자 |
| 정수현 | 배미령 |
| 정태영 | 정성훈 |
| 한은혜 | 김은주 |
| ■ OCC | |
| 나기정 | 진현경 |
| ■ OEM | |
| SchulzHuSuk | 허수영 |
| ■ S브릿지 | |
| 강연희 | 방충애 |
| 김경한 | 최인기 |
| 김미라 | 문주영 |
| 김 원 | 김덕겸 |
| 김혜경 | 유정미 |
| 김호휘 | 김희태 |
| 박종환 | 김동우 |
| 박혜미 | 유영신 |
| 변지원 | 홍소피아 |
| 서동환 | 이종훈 |
| 양은화 | 문남주 |
| 이미란 | 이선경 |
| 정성윤 | 예상욱 |
| 정희진 | 구정란 |
| 최예지 | 김은하 |
| 추서윤 | 이경주 |
| 홍성화 | 이강인 |
| 황매자 | 김성은 |
| **양재** | |
| ■ 강남A | |
| 고지령 | 조은경 |
| 김수희 | 심 정 |
| 김연희 | 양정희 |
| 김종광 | 박상원 |
| 박석재 | 남승범 |
| 백태영 | 김주홍 |
| 옥현주 | 양영회 |
| 이수현 | 조옥환 |
| 이지연 | 이재인 |
| 장영은 | 이소현 |
| 최미정 | 최미애 |
| ■ 강남B | |
| 권순덕 | 김정기 |
| 김민정 | 이일진 |
| 김택선 | 김태원 |
| 박소희 | 유미경 |
| 박재순 | 문정희 |
| 박혜성 | 이진우 |
| 심대근 | 윤일철 |
| 이광석 | 심효무 |
| 이남일 | 김진경 |
| 이승희 | 강정현 |
| 임천식 | 조창기 |
| 전홍정 | 이호영 |
| 한진호 | 이유간 |
| ■ 강남C | |
| 고문현 | 배준한 |
| 김소혜 | 김미주 |
| 김제돈 | 박진용 |
| 김지향 | 김미정 |
| 김필순 | 김순옥 |
| 윤미영 | 김홍인 |
| 윤지원 | 강정모 |
| 이관행 | 송기환 |
| 최수경 | 금현정 |
| 최하영 | 이한숙 |
| 한수진 | 임경은 |
| ■ 강남D | |
| 김승민 | 허규연 |
| 김윤진 | 김규한 |
| 박준형 | 김성종 |
| 박현진 | 하상우 |
| 신지현 | 오지희 |
| 원세연 | 심규혁 |
| 윤성진 | 방효영 |
| 이재철 | 황성용 |
| 이진아 | 박정남 |
| 전수지 | 이상희 |
| 조민호 | 윤원재 |
| 한승주 | 박영란 |
| ■ 과천의왕 | |
| 송기선 | 홍승우 |
| 유제섭 | 이헌규 |
| 이주영 | 이은희 |
| ■ 분당A | |
| 권영민 | 정대성 |
| 김미정 | 홍양순 |
| 김영석 | 백진수 |
| 김정란 | 유경화 |
| 여한구 | 류기범 |
| ■ 분당B | |
| 김경민 | 박애란 |
| 김병성 | 박용준 |
| 김선미 | 김윤경 |
| 박은신 | 이지영 |
| 송지영 | 권정희 |
| 신연주 | 이윤주 |
| 신윤철 | 김광식 |
| 오무강 | 장창남 |
| 원종덕 | 이규종 |
| 이진실 | 홍은지 |
| 조성연 | 조두현 |
| 조정은 | 남경옥 |
| ■ 산본안산 | |
| 김동진 | 이상욱 |
| 박루디아 | 김희정 |
| 조희숙 | 이옥순 |
| 황성찬 | 이창훈 |
| ■ 서초A | |
| 강국희 | 송기환 |
| 김영은 | 임명원 |
| 이복희 | 이선희 |
| 한의숙 | 전순분 |
| ■ 서초B | |
| 고광민 | 박진재 |
| 김명자 | 강신완 |
| 김재선 | 김옥희 |
| 김진순 | 윤영철 |
| 문흥귀 | 유완영 |
| 박복임 | 전애육 |
| 이민경 | 조현영 |
| 정경숙 | 이윤옥 |
| 황정숙 | 성인숙 |
| ■ 서초C | |
| 김효진 | 김찬주 |
| 반재화 | 백홍기 |
| 서용자 | 박명희 |
| 이경희 | 송민령 |
| 장성욱 | 이숙경 |
| ■ 서초D | |
| 박일희 | 안성훈 |
| 신종민 | 이성오 |
| 이동헌 | 유성재 |
| 전홍철 | 황윤일 |
| 정미영 | 신지원 |
| ■ 송파 | |
| 강미화 | 김현옥 |
| 구영곤 | 홍장기 |
| 김건백 | 조정국 |
| 김미정 | 백경애 |
| 민혜원 | 김진홍 |
| 박헌숙 | 김운희 |
| 서춘옥 | 허순창 |
| 안은주 | 백경애 |
| 엄한용 | 홍성주 |
| 오영주 | 안희정 |
| 이귀환 | 안희정 |
| 이수연 | 이승희 |
| 이수정 | 이기용 |
| 임희수 | 박승병 |
| 정유민 | 김미경 |
| 정은주 | 오미령 |
| 한승희 | 고선미 |
| ■ 안양평촌 | |
| 김태형 | 김일호 |
| 장서영 | 정미경 |
| ■ 양재 | |
| 김관옥 | 장인옥 |
| 김수정 | 이은숙 |
| 김양희 | 이미애 |
| 노주익 | 이동훈 |
| 박성희 | 오지영 |
| 박재서 | 모효숙 |
| 박재우 | 노희정 |
| 박혜영 | 이은경 |
| 서순영 | 김인숙 |
| 서정옥 | 민경애 |
| 손용택 | 이성주 |
| 양진문 | 조동재 |
| 이승태 | 안권준 |
| 정재원 | 전해옥 |
| 조은실 | 우주연 |
| 최경석 | 이상현 |
| 황미선 | 허정윤 |
| ■ 특별한초대 | |
| 이상준 | 김성호 |
| 장철주 | 김상석 |
| 홍관우 | 이승근 |
| ■ 푸른누리 | |
| 우하림 | 김나연 |
| 유지원 | 최홍희 |
| 장주현 | 정광진 |
| 최애라 | 장혜경 |
| 황철윤 | 임영빈 |
| ■ 하나 | |
| 백유미 | 최우연 |
| ■ Bridge33+ | |
| 김기정 | 김영선 |
| 김문주 | 박선향 |
| 김호정 | 김두희 |
| 김희진 | 강미순 |
| 박미령 | 이정현 |
| 배원철 | 심효무 |
| 백재현 | 노재민 |
| 신은경 | 이영실 |
| 윤지혜 | 박영실 |
| 이준승 | 김홍태 |
| 임선영 | 안은숙 |
| 임찬규 | 이정구 |
| 정연선 | 김미혜 |
| 조필중 | 이태우 |
| 한지원 | 김경남 |
| ■ Harmony | |
| 임혜인 | 김희원 |
| ■ Point5 | |
| 김선애 | 김관유 |
| 김주연 | 신주연 |
| 김혜진 | 김관유 |
| 김홍염 | 홍정화 |
| 남승현 | 이정민 |
| 백지수 | 이윤옥 |
| 이민호 | 이종건 |
| 이지현 | 강혜정 |
| [illegible] | [illegible] |
| **대청** | |
| ■ 갈렙 | |
| 김은지 | 이미숙 |
| 석혜원 | 류혜석 |
| 유지윤 | 김금희 |
| 조진선 | 민지혜 |
| ■ 길 | |
| 김은미 | 엄애례 |
| 유경화 | 여의주 |
| 정은진 | 배대현 |
| ■ 여호수아 | |
| 강유진 | 임희영 |
| 권영미 | 마승재 |
| 김사라 | 김정숙 |
| 김선경 | 노정은 |
| 김이레 | 김은영 |
| 김지슬 | 김민영 |
| 김혜진 | 김경미 |
| 김홍식 | 이상영 |
| 김희연 | 안인숙 |
| 박동인 | 송진구 |
| 박인애 | 최은정 |
| 송주희 | 김현정 |
| 송현석 | 김유진 |
| 신진호 | 김수성 |
| 오선혜 | 차희숙 |
| 오주현 | 장현식 |
| 이가은 | 이숙경 |
| 이경진 | 황윤주 |
| 이보람 | 라종일 |
| 이은영 | 이영선 |
| 이주영 | 김정란 |
| 이준행 | 김명세 |
| 최성호 | 허 경 |
| 최예은 | 신윤옥 |
| 최학민 | 김정훈 |
| 한대봉 | 이정석 |
| ■ 요셉 | |
| 강신우 | 강년수 |
| 고순철 | 남중희 |
| 김가영 | 곽미선 |
| 김대승 | 옥윤석 |
| 김아름 | 강영은 |
| 나승현 | 김재덕 |
| 이지원 | 이현철 |
| ■ 하늘 | |
| 김정엽 | 한세일 |
| 조혜진 | 이경희 |
| 최용태 | 진종구 |
| ■ 허브 | |
| 강태윤 | 서순영 |
| 권지윤 | 문주현 |
| 김재진 | 이 근 |
| 김태희 | 양영화 |
| 유영란 | 강주현 |
| 윤연수 | 박경주 |
| 최두찬 | 정훈재 |
| 홍진희 | 정미영 |
| 황록경 | 박경원 |
| ■ J4U | |
| 권청아 | 모효숙 |
| 김 선 | 한미란 |
| 김아름 | 안혜준 |
| 김진주 | 함민정 |
| 방예진 | 김세은 |
| 신호준 | 백종한 |
| 이상화 | 곽금봉 |
| 이슬기 | 이숙경 |
| 임용규 | 홍장기 |
| 정세희 | 권애화 |
| 정정민 | 오윤석 |
| 최동규 | 박차홍 |
| ■ Pole2 | |
| 주혜경 | 박민아 |
| ■ SNS | |
| 길지원 | 양재경 |
| 김미경 | 변영주 |
| 김봉수 | 구은광 |
| 김영선 | 김준철 |
| 김은비 | 이환경 |
| 박상혁 | 김성겸 |
| 배요셉 | 금세종 |
| 신혜조 | 송해선 |
| 심보연 | 오지연 |
| 오하린 | 길유진 |
| 이나리 | 한금선 |
| 이수아 | 김미형 |
| 이수진 | 신정금 |
| 이재원 | 김희정 |
| 이지혜 | 박은화 |
| 이진희 | 김미정 |
| 이창선 | 이선경 |
| 정보람 | 변영주 |
| 정수현 | 이상애 |
| 조은혜 | 김애련 |
| 최가영 | 이숙희 |
| 최은정 | 김현아 |
| 하지애 | 편정희 |
| 한재임 | 이상은 |
| 홍수정 | 김가영 |
| ■ W | |
| 김민지 | 오미경 |
| 김수연 | 송기현 |
| 이경태 | 성창섭 |
| 이정현 | 황지원 |
| 이지숙 | 김수연 |
| 이진선 | 조은미 |
| 장하영 | 임충남 |

##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2월 19일(주일) 2부예배

수료대상자 오전 8시 30분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수료대상자-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양재 사랑홀)

수료대상자: 16년 11월 7일~1월 31일 사이에 완료 보고한 성도입니다.

| | | | | |
|---|---|---|---|---|
| **서빙고** | | | | |
| ■ 신동식 목사반 | | | | |
| 김병식 | 김수정 | 박무엘 | 이병성 | 박시내 |
| 김영선 | 김이수 | 박상준 | 이수희 | 신석호 |
| 김용순 | 김정아 | 박성호 | 이윤지 | 왕미나 |
| 김재호 | 김주현 | 조주상 | 임석건 | 이승연 |
| 김충환 | 박희경 | **양재** | 임영수 | 이영순 |
| 김현철 | 성지은 | ■ 김 원 장로반 | 조혜영 | 이재영 |
| 송영호 | 신혜정 | 김용미 | 홍윤숙 | 이혜원 |
| 안은주 | 양옥경 | 이동수 | ■ 김태용 목사반 | 조태희 |
| 오선희 | 오윤주 | 최난숙 | 김동철 | 한병학 |
| 우주현 | 오정아 | ■ 김소리 목사반 | 김정윤 | ■ 정재륜 목사반 |
| 윤영수 | 우정완 | 권혁회 | 성기범 | 김지현 |
| 윤은경 | 윤연옥 | 김경애 | 이경화 | 박주연 |
| 이민철 | 이경자 | 김소형 | 정은정 | 신주연 |
| 정혜선 | 이승윤 | 김승미 | 조만재 | 이정은 |
| 조상훈 | 이정현 | 김유진 | 주소희 | 전상호 |
| 차승훈 | 이혜경 | 김윤상 | 홍문식 | 정지민 |
| 차윤선 | 장동연 | 김주성 | ■ 양성민 목사반 | 조 현 |
| 허미현 | 조아라 | 김희정 | 백명은 | 최은경 |
| 황권택 | 추명희 | 이병일 | 오사랑 | 한예진 |
| 황옥화 | 한 숙 | 이지연 | ■ 오 민 목사반 | 한재민 |
| ■ 육동건 장로반 | ■ 임용성 목사반 | 이창운 | 권문숙 | ■ 정재욱 목사반 |
| 곽유신 | 강남석 | 장기옥 | 김학실 | 신일숙 |
| 곽윤수 | 고 용 | 전경은 | 김혜영 | ■ 조대희 장로반 |
| 김 강 | 김나희 | 전호준 | 박영화 | 김대두 |
| 김충열 | 김남철 | 정영원 | 박예은 | 김대학 |
| 김현채 | 김연희 | 채문이 | 박인자 | 김민석 |
| 손해근 | 김영숙 | 채인선 | 서지연 | 김정수 |
| 심영훈 | 김준완 | 최유식 | 양수연 | 박명숙 |
| 윤인순 | 김찬숙 | 홍혜경 | 유미미 | 신 정 |
| 윤희경 | 나상진 | ■ 김영배 목사반 | 윤소영 | 오윤진 |
| 이수연 | 박혜림 | 김이경 | 이윤희 | 윤진영 |
| 이영재 | 소재희 | 김주희 | 임서연 | 이미종 |
| 이한진 | 신성원 | 김찬송 | 최은영 | 이병제 |
| 전병길 | 안혜성 | 김현우 | ■ 전재표 목사반 | 장민구 |
| 한승희 | 윤병권 | 김현진 | 김두환 | 장성수 |
| 황성모 | 임무택 | 노주희 | 김성희 | 정다운 |
| ■ 이민욱 목사반 | 전순담 | 배금란 | 김지수 | 조주익 |
| 권수정 | 조택호 | 안중산 | 김한나 | 주상선 |
| | 지용화 | 윤종구 | | |
| | 홍정표 | 이명희 | | |
| | ■ S브릿지반 | | | |
| | 김신실 | | | |
| | 김은기 | | | |

1135호 20170212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7. 2. 10. 오후 9:11 페이지 1



##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꿈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세라 선교사(010-4029-7601)

**제115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기간: 4월 22일~5월 14일 총 4주
장소: 온누리교회(1주차), 진새골 사랑의 집(2~4주차, 경기도 광주)
대상: 행복을 소망하는 부부
회비: 가정당 300,000원(자녀 동반시 1인당 5만원 별도)
등록: 수시접수, 선착순 24가정 (www.onnurifamily.com)
문의: 김상범 총무(010-5471-0854)

**두란노서원 시스템팀 채용 공고**
모집: 프로그래머(1명)
경력: 신입가능, 2년 이내 경력자 우대
마감: 2월 17일(금)까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온누리선교재단 직원채용 공고**
모집: 서빙고 온누리플라워 플로리스트, 서빙고 커피숍 직원, 서빙고 보안관리 직원, 양재 기관시설관리 직원, 양지 기전 직원, 양지 영선 직원(1년 기간제 계약직)
제출: bible81@onnuri.org
문의: 총무팀(02-3215-3102)

**45기 젊은부부학교**
일시: 4월 8일(토)~4/29(토)
대상: 결혼기간 12년이하
비용: 가정당 35만원
신청: 젊은부부학교 네이버카페, 아이스쿨
문의: 조동화 총무(010-2578-9861)

**두란노서원 편집자 채용 공고**
모집: 유치부 큐티지 편집자(정규직) 1명, 초등학생용 큐티지 〈예수님이 좋아요〉 편집자(계약직) 1명
자격: 1년 이상 편집 경력자, 신학 관련 전공자(신대원 이상), 유치부 목회 경력자(파트타임 경력 포함)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인천캠퍼스 전임간사모집**
모집: 재정, 행정담당 전임간사 1명
문의: 박창홍 간사(032-437-9686)

## 양 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 샬롬기도회**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비전홀A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목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일대일 양육자반 모집**
**김영창 목사반**
개강: 2월19일 주일 오후 2시(16주)
장소 : 도곡 화평홀
**김영배 목사반**
개강: 2월26일 주일 오전 8시(16주)
장소 : 강의동304호
**오민 목사반**
개강: 2월28일 화 오전 10시(16주)
장소 : 한동홀
대상: 세례등록교인, 동반자과정을 수료한 자, 공동체 및 순 소속
신청: 아이스쿨
문의: 02-570-7349

**양재 실전 목요기도학교**
기간: 3월 2일~5월 18일(매주 목요일)
시간: 10시~12시 30분(기쁨홀)
강사: 강은혜 목사
회비: 3만원
문의: 문선희 팀장(010-6212-3451)

##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 4부(청년) 오후 4: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 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How Mission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 인 천
032.437.9686

**주일예배**
송도 컨벤시아
성인 1부 오전 9시 / 성인 2부 오전 11시 30분 / 성인 3부 오후 2시(컨벤시아 2층 볼룸) / 청년부 오후 2시 113호 / 차세대예배 11시 30분 영아부 104호 / 유치부 110호 / 유년부 107호 / 초등부 113호 / 어린이영어예배 오후 2시, 109호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고등부 오전 9시/대학부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3층**
사랑부 오전 11시 30분 / 몽골어예배 오후 1시
**주중예배 – 프리스페이스 6층**
새벽기도회(월-토) 5:2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 양 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 11:00 / 3층 주선애홀 (본당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지하1층 킬보른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굿모닝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471-85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rn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문봉주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542-0083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Saiin Pram Bld 6F, Sanjocho 14, Saiin
Wookyoku, kyoto japan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김영철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53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ǒ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장춘
**박시형 목사** 86-131-7900-0752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长路 213号 onnuri.
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changlu 213hao onnuri.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박형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종민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일영 강일하 권영환
권오향 권용갑 김경훈 김관수
김도균 김도윤 김상수 김성욱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윤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렴문홍
마이크리 문영재 박성은A 박성은B
박사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승훈
박윤헌 박철웅 석승호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차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우윤상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경숙 윤길중
윤석원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동훈 이민욱 이상진
이서진 이성민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임항재
요시하라마나부 전신익 전재표 전홍천
정상훈 정성훈 정웅규 정재륜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Philip Arndt

◈전도사(전임)
길혜영 김은영 김용민 김재승
김종호 김진아 문장원 박승훈
배행삼 변대섭 송석근 유승현
윤현규 이강현 이우람 이종현
이준인 임경헌 정한효 한영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이기복

◈협력목사
김도일 류모세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강은혜 곽상학 김기범 김지애
김종영 김창성 데벤드라 라즈 랜디빠당줄렉스
마주마누룽 비랏라살리 백영미 손 숙
싱루아마납 안희진 이창호 유세르게이
유승덕 윤용국 임선아 최봉오
차제이미 Enoch Kwaku Hanokh

◈전도사(파트)
강민석 강성효 강지영 강희성
고동일 고인호 고은아 구민선
기호진 김기락 김기태 김덕기
김민석 김민영 김성웅 김세현
김세환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용석 김은하 김은혜 김진아
김찬숙 김태환 김형중 김혜경
김희연 나지혜 노태규 문대성
민경윤 박광규 박근명 박근범
박상명 박신광 박양원 박은미
박은빛 박은자 박이호 박종익
박지원 박진혜 방세미 배순양
백영미 백종갑 서수민 서영희
서종옥 서 철 송지은 신경훈
신대군 신대종 신유수 신중건
신하선 신현민 안사무엘 안용곤
알난라파엘레비 양은주 양진범 오스라
오준현 유 경 유진아 윤기철
윤상복 윤수신 윤정노 윤준석
윤치연 윤형림 이경선 이다솔
이루주 이미령 이선영 이성광
이승윤 이양권 이완희 이용기
이원준 이은경A 이은미 이은희
이재석 이정도 이종민 이지원
이진이 이창우 이춘호 이풍주
이현대 이현석 이혜지 임요한
임지성 임지훈 장동원 장유미
장윤진 장재원 장춘혜 전가영
정만희 정에스더 정영광 정영희
정지환 정진아 조묘구 조상훈
조성환 최규종 최대흥 최성규
최성필 최영빈 최재윤 최정현
최종현 최현웅 카와무라요시키 하승현
하청훈 한성훈 허륜호 허영은
현신원 홍세나 홍세녹 홍순영
Lkhagvasuren Gan-Otgon

◈사역장로
강인지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선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순 김수광 김수웅
김수역 김영길 김원경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용성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주현 김진국
김철수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류지영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용국 박영태 박찬빈 배종수
백승웅 백호현 서진봉 서창희
서찬교 성창섭 송만석 송일섭
송유신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안국영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완영
유재천 윤성열 윤영오 윤지준
이강범 이건재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융대 이재준
이종순 이창남 임광택 장양희
정강무 정돈영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윤채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최선수 최 명 최창규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하영철 하용기
한종대 한형식 함선호 홍기명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기석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영중 강의선 강찬석 강철호
고 건 고다이라 고영주 곽진성
권득한 권영석 권오습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김 완 김 웅
김 원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기영 김기호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종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인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묵
김성종 김성진 김승열 김연상
김영수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
김용기 김용호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욱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하중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상권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노기홍 노흥규
류기범 명영찬 문성기 문영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종현
박지수 박태성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남인 백홍기
상병선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손한기 송동섭 송영범
송영태 송종환 신무환 신민호
신영각 신학철 신헌승 신현길
신현종 심길섭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심희돈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상식 양유식 양주현 양춘경
양충식 오상록 오성훈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 형 유병진
유병훈 유윤하 유의준 유재홍
육동건 윤기홍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현덕 윤형주 이 철
이경찬 이경훈 이관수 이광순
이광형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우곤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호 이정구 이정근 이종우
이태열 이태환 이한열 이해달
이헌규 이현조 이홍선 이화영
이희주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정열 이종길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선철 장형준
전구영 전영수 전장하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병균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성현 조성환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민철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주관 최진성
최창수 최한우 최현재 편무옥
하성기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필우
허형석 홍덕표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종철 홍해남
황병원 황영옥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마흥규 문태준 박동순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권준길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임웅규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서동희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이미선 이민호 이신영 이수정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미라
조익현 조정훈 전병곤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훈희 홍용식
홍정표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연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김지영 김지희 금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석지혜
이혜진 안은경 안은영 양지연
양현선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진 정경미 정다혜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한은미
황보승 배원신 강영은 황대준
허윤선

### 해외 온누리교회

◈OMA담임목사
김형철 박재영 이정엽 이중재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권혁빈
금경연 김대진 김시연 김영철
김철진 김철희 김태완 박재영
니시야마신이치 마크최 문봉주 박만규
박시형 심상현 서재범 서 현
유현목 이성권 이영선 이한규
이 훈 정장철 최영민 하카마타미키

◈부목사
강일하 곽성환 권희경 금동섭
김미정 김인숙 김시연 김성종
김재형 김태환 노경호 문성일
박근택 박대원 박신웅 박수환
박주영 박택근 방지남 백인호
서성광 엄영기 여필종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상훈 이성영
이세영 이일표 이재웅 이지훈
이종실 전상현 전현규 전홍렬
정동윤 정용환 정호석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정무
허 민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James Park joseph Chu Joe Lee Lee Yi
Sam An

◈전도사
강성근 강찬호 강창환 기지마에미코
김산성 김성민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우신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현경 구혜선 노경호
레이첼백 마커스 문하나 민성민
박우람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헌얼 박현욱 배윤희
백도훈 백일승 샘 리 서민표
서재욱 설산정 손미경 손주은
송준헌 신기원 안지현 양달샘
윤경선 이민혜 이복음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재경 이지나
이현우 윤성민 장세윤 장지은
장제홍 지자영 전희동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승철 조 단
최성배 최은정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하보라 핸슨오 홍가람
Christine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Tommie Njobvu

◈장로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재동
백 학 손진성 신중수 이덕한
이상덕 이만영 이문호 장민용
장우진 정길안 조규배 조록형
조성민 허규회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연수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이재원 임헌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남명호
노용진 도승희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최승준 최정혜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 결혼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00 서빙고 본당**
김희상, 김남미(온누리교회 집사, 권사)의 아들
김혁준(온누리교회)
송호준, 정혜란(문흥장로교회 장로, 권사)의 딸
송이레(온누리교회)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00 양재 사랑홀**
김현석, 김명숙의 아들 김민규(온누리교회)
김남주(온누리교회)의 딸 김누리(온누리교회)

**2월 18일 토요일 오후 2:00 양재 사랑홀**
홍주남, 이정희의 아들 홍관우(온누리교회)
정진하, 장영희(온누리교회 장로, 권사)의 딸
정은지(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문창극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이소정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학습 자원봉사자 및 후원품 모집**
검정고시(수학,과학,윤리,국사) 및 악기(통기타) 후원
문의: 임재금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이주현 과장(070-4489-6889)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기계목욕 및 안내 자원봉사자 모집**
시간: 기계목욕(화요일 10:00~12:00), 안내(시간협의)
문의: 길다솜 사회복지사(3407-2747)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베이비부머&시니어 대상 '행복한 요리학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50세 이상 남녀 어르신
일정: 1분기(1~4월), 2분기(5~8월), 3분기(9~12월)
남성A반(화, 10시) / 남성B반(수, 10시)
여성A반(화, 13시) / 여성B반(수, 13시)
안내: 분기별 100,000원(총 12회기 진행)
문의: 허정훈 사회복지사(02-794-6100)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내용: 식자재 다듬기, 배식, 설거지
시간: 매주 화, 수, 목 0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소미 사회복지사(070-4340-2599)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이영환 팀장(02-985-3609)

## 재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모든 상담 사전예약 필수)
(화~금: 오전10:00~오후5:00, 토~일: 오전10:30~오후3:00)
**면접상담** 신앙,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상담, 미술치료
**전화상담** 위기시에만 제공
**심리검사** MMPI-2, MBTI, 종합심리검사, 에니어그램, U&I 학습. 진로탐색검사
**특수상담** 세무상담: 첫째 주일 오전 10:30~12:00
정신과,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암환자 상담: 주일 오후 3:00 이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수요일 오후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소천

**2/2(목)** 중종로 임병숙 집사 모친상 고 이국희
**2/3(금)** 동대문중랑 문선옥 집사 부군상 고 신재천
**2/3(금)** 송파 김성훈 성도 빙부상 고 양재홍
**2/4(토)** 강남B 구경용 집사 모친상 고 하부순
**2/5(주일)** 방송실 최완근 간사 빙모상 고 정복만
**2/5(주일)** 동대문중랑 이영란 집사 모친상 고 박선우
**2/6(월)** 이촌 송명애 집사 모친상 고 표흥순
**2/6(월)** 서산 온누리교회 김미수 성도 모친상 고 홍현순
**2/7(화)** 동작 박진희 집사 모친상 고 조만규
**2/7(화)** 강남C 정선아 성도 시부상 고 엄인필
**2/7(화)** 강남A 송기숙 권사 부군상 고 박찬기
**2/9(목)** 강남B 심재익 성도 빙부상 고 허정호
**2/9(목)** 송파 계봉오 성도 빙부상 고 최훈열
**2/9(목)** 중종로 신선애 자매 부친상 고 신향식
**2/9(목)** 양재 이인기 성도 빙모상 고 최영희

1135호 20170212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7. 2. 10. 오후 9:11 페이지 3